

‘발렌시아 어린이 합창단’ 5월 오디션 및 6월 발족

5월 30일(토) 오디션...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연습
지휘자 김현미씨는 연세대 성악과·USC 성악 석사

[산타 클라리타] 산타 클라리타에 어린이 합창단이 6월 발족된다.

‘발렌시아 어린이 합창단’ (가칭)은 단원 선발을 위해 5월30일(토) 오후 1시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본당에서 오디션을 가질 예정이다.

“발렌시아 지역의 척박한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예술적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발렌시아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비록 저희 교회에서 후원은 하지만, 저희 교회 부속 합창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임시단장을 맡은 김정우 목사는 기독교인 자녀들만 받는 것은 아니며, 안 믿는 가정 자녀들도 차별없이 받는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성가만 고집하지 않고 아름다운 곡들을 두루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뻗뻗하게 선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답게 발랄한 모습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It is magical and powerful.) 그런 만큼 음악은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노래들을 부를 때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자녀들이 많겠지만, 원래 의도는 언어와 종족에 관계없이 받아서 영어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우 목사는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와 아이들이 많아서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차차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겠지만, 일년에 두 번 정도 정기공연과,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특별공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실력 있는 지휘자와 반주자가 준비된 만큼 기대가 크며, 주민들의 도움이 여러 면에서 많이 필요한만큼,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디렉터 겸 지휘자인 김현미씨는 어린이 성가대 출신으로서 선화예고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USC 음



에서 성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서라벌 중학교 음악 선생님, 로고스 성결교회 및 북가주 새누리 침례교회에서 다년 간 성가대 지휘자를 역임했다고 한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의 어린 마음에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인 성가를 부르면서 제 영혼이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김현미 지휘자는 “음악과 영성을 통해서 발렌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이 아름답게 순결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며 “5월에 설명회 겸 오디션을 하고, 6월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토요일 오후 연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디션 일정 및 장소〉

▲일정: 5월 30일(토) 오후 1시부터 3시

▲장소: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 본당 25133 Avenue Tibbitts, Valencia, CA 91355

▲지원 연령: 1학년-8학년 (2009년 8월 기준)

▲오디션 참가비: \$10

▲심사내용 : 5분내 자유곡 1곡 및 지정곡 (www.VNCC.org/choir 참조)

▲문의: 김 현 미 (집) 661-253-1979, (셀) 661-964-8210, jungwoo@gmail.com, 김 정 우 (셀): 661-964-8205

▲지원 요령: www.VNCC.org/choir 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5월 20일(수)까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든지, 우편으로 27432 Coldwater Dr., Valencia, CA 91354에 도착하는 지원자에 한해 오디션을 받음.